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

말씀: 창3:16

요절: 창3:3:16

오늘 말씀은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여자는 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속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자신의 마음속에 세워둔 탐심이란 우상 때문이었습니다(골3:5).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을 둔 채 주께로 나아오는 자에게 그 우상의 수효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탐심, 정욕 등은 단순히 사람의 본능이나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상이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 있거나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여자는 주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꾸는 최초의 성경 변개자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말씀을 의심할 때 연게 되는 열매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신 자신의 유익,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배를 더 섬기듯이 여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여자가 최초로 보여 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딤후3:2)란 마지막 때의 현상은 이미 에덴의 여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자를 속인 뱀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어떤 질문이나 재판 없이 곧 바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뱀은 여자를 속이고 죄를 짓게 했는데 자기가 속인 여자의 씨를 통해 부서질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사면되거나 제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는 결코 뱀에게 내려진 저주나 심판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신학에서 “보편 구원론”이란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옥에 간 불신자는 물론이요 장차 마귀까지도 구원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마귀도 사면을 받게 된다는 이런 교리는 사람들의 상상일 뿐이지 ‘성경적 사실(진리)’이 아닙니다.

여자는 뱀과 적대 관계인데 여기서 여자는 일차적으로 동정녀(처녀) 마리아이지만 역사적으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계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 적의(적대감)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사탄과 이스라엘은 언제나 적대 관계였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씨를 멸하기 위해 아예 여자(이스라엘)를 모두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여 그 씨를 멸하려 했습니다(출1:16). 하만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고 계획했다가 도리어 자신이 죽었습니다(에7:10). 여자를 죽이고, 여자의 씨를 멸하려는 마귀의 적대감은 성경적 계시로 실제 역사의 면면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자(이스라엘)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온 세상은 늘 여자(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표출하고 그들을 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 학살, 유대인 말살 정책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유대인 학살, 유대인 말살 정책은 앞으로 대환란 때 그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에게서 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여자는 비록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씨를 통해 마귀를 심판하심으로 공의로운 보복과 심판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여자에게 “네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나?”(창3:13)고 물으셨지만 여자는 자신이 한 일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대신 그 책임을 모두 뱀에게 돌렸습니다. 여자는 주님의 공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공흠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약 2:13)라는 말씀처럼 죄인은 언제나 주의 공흠을 구할 때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은 공흠이 많으신 분이요,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십니다(출34:6). 그러나 여자는 공흠을 구하는 대신 변명을 통해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온 세상의 재판관이요 심판자이신 주님은 이렇게 판결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고통(슬픔)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16). *고통-sorrow(KJV). 하나님은 죄를 범한 여자에게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네게 슬픔(sorrow)을 더하리니. 성경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보다 사람들에게 대해 더 정확히 알고 말해줍니다. 여자들이 작은 말이나 일에도 쉽게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다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모두 심판의 결과로 ‘슬픔’이 크게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자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슬픔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남자보다 여자는 마음속에서 슬픔이 훨씬 더 증폭됩니다. 똑 같은 것을 들어도, 똑 같은 것을 보아도 느끼는 감정에서 엄청난 차이를 내는 것은 ‘슬픔’이 크게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가을 날 떨어지는 낙엽에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호르몬의 문제나 유전자의 문제, 대뇌의 감정 인식 방법 등의 차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자는 주님의 심판을 받은 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자에게 많은 슬픔(sorrow)이 더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똑같은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자주 많은 슬픔을 느낍니다. 이는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자에게 내려진 첫 번째 심판이 슬픔입니다. ‘희락’이란 이름의 에덴에 슬픔이 등장했습니다.

둘째, “임신을 더하리니”입니다. 본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산하는 것은, 주님께서 복을 주신 복의 결과이지 심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더하리니=multiply. 주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네게 임신을 크게 더하리니”라고 하셨는데 이는 수태 기간의 길이가 엄청 길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자들은 보통 10개월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배에 안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오랜 임신 기간은 여자에게 상당한 부담과 위험, 고통을 안겨 주는 심판입니다. ‘임신을 더한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가임 기간이 일 년 내내 언제나 가능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새끼를 낳는 임신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가임기와

불임기가 완벽하게 나누어져 있고, 가임기는 매우 짧습니다. 일 년에 몇 주, 몇 개월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 기간이 크게 늘어나 일 년 내내 거의 언제나 임신이 가능합니다. 여자들에게 매월 불임 가임 기간이 있긴 하지만 가임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셋째, 네가 고통(슬픔)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여자는 출산 때에 슬픔이 따릅니다(창3:16). 특히 자식을 낳기 전에 기쁨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진통이 따르며 불안과 위험을 느낍니다. 아무리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어도 여자는 슬픔 가운데 아이를 낳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들이 통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진통제, 마취제 등을 투여함으로 출산의 고통이나 슬픔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평안히 쉽게 아이를 낳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을 때(창1:28) 여자는 아무런 고통이나 슬픔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겠지만 죄의 결과로 인해 출산은 언제나 힘들고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요”란 말은 태어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울면서 태어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는 어떤 동물의 출생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넷째,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으리라(16). 여자의 열망(desire)이 자기 남편에게 있습니다. 여자의 최대 욕구는 좋은 남편을 얻고, 남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독립성의 상실로 비참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여자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죄로 인해 여자의 독립성은 상실되었습니다. 오늘날 여권 운동가들이 여성의 독립, 남편 없이 홀로서기를 외치며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여권 운동가들도 이혼할 때 남편의 것을 절반이상 원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남편에게 열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녀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를 돕도록 지음 받은 여자가 남자로 범죄케 한 일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자에게 평생토록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16). 이것은 성경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나 동양적 사고나 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는 말씀은 중동, 아시아,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족, 나라들에서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불과 몇 십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 천 년 동안 남편이 여자를 다스렸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지배하려는 여자가 넘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 같지만 6,000년 역사에서 아무도 바꾸지 못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자의 지위가 남편 아담을 돕는 동역자의 위치에서 다스림을 받는 위치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 악하게 다스린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자에게 선고하신 다섯 가지 심판은 모두 가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식과 남편’에 관련된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 남편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심판입니다. 여자가 겪는 대부분의 슬픔과 고통은 ‘자식과 남편에 관련된 가족’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자들을 상담해 보면 자식으로 인한 걱정과 슬픔, 남편으로 인해 겪는 걱정과 슬픔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눈물, 임신과 출산의 고통, 완전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남편을 섬기려고 애쓰는 불행한 모든 순간은, 죄의 결과가 여자에게 가져다 준 고

통이요, 심판입니다.

에덴에서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은 신약의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1:3 에베소서 5:23 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시니라.”(고전11:3).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란 말씀은 여자와 남자의 성경적 관계 설정입니다. 이것은 가족과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남녀평등, 양성평등은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신학자들 중에는 성경이, 급속하게 변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동떨어져 있다는 헛소리를 해대는 이들이 있고, 그 중에는 이 구절에 대해 ‘바울이 말하려는 바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여자들의 입맛에 맞는 해석을 들려주느라 정신없는 이들이 수도룩합니다. 여권 신장, 양성 평등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란 이 구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요, 가치입니다. 여자의 머리인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에베소서 5:23을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엡5:23).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주님의 관계와 일치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이 말은 곧 복종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엡5:24). 한 세대 전만 해도 이 구절은 모든 여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진리였지만 오늘날에는 심한 거부,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평등을 원하거나 지배하기를 원하는 여자들에게 “복종할지니라(엡5:24).”는 말씀은 목에 가시만큼이나 먹기도 삼키기도 어려운 음식입니다. 그렇다고 뱉아 낼 수도 없는 그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여자들의 머리 위에 남편이란 권위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긴 머리를 주셨습니다(고전 11:1-16).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고전11:15). 긴 머리는 복종의 증거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밀거나 짧게 컷하는 것은 여자의 독립적인 영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은 복종의 상징을 제거하는 것이며 본성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고전11:6). 여자가 복종의 상징을 제거할 때 그것은 수치가 됩니다(고전11:6).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덮을지니라.”(고전 11:6). 동산에서 여자는 자신이 벗었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창3:7).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머리를 민 여자들이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슥3:5).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딤후 2:11-12). 에덴에서 여자가 속아서 죄를 범한 것은 아담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뒤 오히려 남편까지 죄를 짓게 했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여자는 마귀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고 속지 않게 됩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에덴에서처럼 남자를 속이지 못합니다(고전14:34-35).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시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니라.”(고전 14:34-35).

여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과 남편과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주님이 여자에게 내리신 심판은 더 이상 자신과 남편과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남편을 머리로 정하시고,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신 것은, 여자를 억압하거나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배려와 도우심입니다.

에덴에서 여자가 아담에게 자신이 먹던 것을 주어 먹게 했다는 사실은 여자가 아담을 리드하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여자에 대한 아담의 타고난 애정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거나 지도자의 지위에 서는 것을 를 금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소위 여선지자, 여자 목사, 여성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크리스천 싸이언스의 메리 베이커 에디, 제칠일 안식교의 메리 엘렌 G. 화이트, 은사주의 지도자 캐더린 쿨만 등은 모두 마귀 들린 여자들에 불과합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고 세워주어야 합니다(엡5:33).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우리 언어 속에서도 잘 보여 집니다. MRs, huMAN, woMAN, perSON, feMALE 등입니다. 또한 독립적이 되기 위해 결혼 후에도 자신의 처녀 때 이름을 고집하는 여자들이 있지만 실상은 그들도 결국 자기 아버지의 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결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사실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인해 생긴 모든 문제에서 여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주신 '여자를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심판

말씀: 창3:17-19

요절: 창3:19

오늘 말씀은 “남자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롭고 치우침이 없고 조금도 부정함이 없습니다. 주의 판단은 다 진실하고 의롭습니다(시19:9). 주의 판단들은 선하고(시119:39), 주의 판단들은 곧 바르고(시119:75), 주의 판단들은 곧바릅니다(시119:137). 주님은 재판관이시요, 주의 말씀은 판단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잘못 판단하거나 재판을 굽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주의 판단들은 너무나 깊고 커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듯 주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고 배워야 합니다. 주의 판단들에 소망을 두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판단들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 판단에 따라 의롭게 판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을 향한 주의 판단, 주의 심판을 보십시오.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18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19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3:17-19). 성경 해석이나 주해, 적용을 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이 말하는 사실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 아담으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다. 지구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환경론자들은 ‘아담이 땅의 지배자요 왕이었음’을 모른다. 환경결정론이 지배하게 된 계기.
- 아담은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한다.
- 땅은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 아담은 들의 채소를 먹는다. *과일, 씨 맺는 채소(창1:29)를 먹었던 아담이 풀(채소-창1:30)을 식물로 먹는다.
-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다.
- 아담은 땅에서 취해졌다.
- 아담은 흙으로 돌아간다. ‘육체적 죽음’

이상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포하신 심판의 판결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누구의 해석도, 신학도, 조 언도 필요 없이 그냥 기록된 그대로의 판결문 진본(眞本)입니다. 여러분은, 재판석에서 판사가 내린 판결 문을 죄인들이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자신에게 내려진 주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폐기할 수 없다면 주의 심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심판을 감당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용을 철저히 살피고 그 내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입니다.

창세기에서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내려진 주님의 심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판결문을 받아 들고 우리는 그 속에 기록된 심판의 내용을 잘 음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들이요, 모두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고,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이요 그에게 내려진 심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심판입니다. 창세기를 신화나 고대 중동의 이야기 정도로 아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요, 실존 인물들이요, 허구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모두가 진리(사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운명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육체적으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이 시간 창세기에서 뱀, 여자, 아담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참 역사(true history)를 공부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왔습니다(롬 5:12).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는 현재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롬5:12). 사망 역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담의 죄, 저주에 대한 심판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은 아담에게 홀로 임한 심판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전 인류에게 그대로 선포된 심판이기에 모든 사람은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 에덴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눅3:38).
-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영, 혼, 육.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고전11:7).
-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입니다(고전15:45,47). -살아 있는 혼(창2:7).
-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롬5:14).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 아담은 세상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시8:5).
- 아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창1:28).
- 아담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창1:28;2:15-17). *명령.

자, 이제 아담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과 운명, 일상의 모든 것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

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17).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담이 판단의 착오나 해석의 오류가 있었거나 너무 어려워져 알아 듣지 못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마귀로부터 직접 시험을 받거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여자에게 다가왔지만 아담에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는 아담이 당시 땅의 왕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마귀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자에게 속은 것도 아닙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 죄목입니다. 율은 시험의 때에 아담과 달리 자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망을 칩으로써 죄를 피했습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성령이 떠나고 힘을 잃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여종 하갈을 취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이 그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역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렘25:4). 모든 죄의 시작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자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담은 주의 말씀 대신 자기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호9:17),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의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슌1:4).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언제나 과학, 철학, 인문학, 교수들, 전문가, 학자들, 매스미디어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 관계, 가족 관계를 더욱 앞세웠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사랑했고 여자를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3:6에는 여자가 아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은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합니다. 여자는 뭔가를 말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명령)을 버리고 여자를 따랐습니다.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한 일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17). 아담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로마서 5:19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롬5:19)란 말씀이 바로 아담의 불순종을 말합니다. 주님은 아담의 불순종을 지적하셨습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딤펵전2:14a). 아담은 무지로 말미암아 속아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음’을 지적받은 것입니다. 아담은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습

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했습니다.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죄들을 덮었던가.”(욥31:33). 아담은 자신의 죄를 여자에게 전가하고 하나님에게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아담의 이런 본성, 행동 방식은 아담의 후손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담의 죄를 밝혀 주셨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별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17).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기 전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냈습니다(창1:29-30). 땅이 내는 것들은 모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는 육체적 생명의 원천을 치신 것입니다(창1:18). 또한 환경을 치신 것입니다.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완벽하게 제공해 주었지만 저주를 받은 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자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살기 힘든 땅’이 수두룩하게 되었고, 어떤 땅은 사람에게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줍니다. 어떤 땅은 썩어 들어가고, 어떤 땅은 아무런 생명도 내지 않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아무 땅에나 살 수 없게 되어 버렸고, 자신이 살기에 적당한 곳을 찾고 개발하고 가꾸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 나은 땅, 기름진 땅을 찾아야만 하고 그런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아담은 이제 평생토록 땅에서 먹는 문제로 고심해야 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아담은 평생 땅에 매인 삶을 살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범죄한 아담을 먹는 것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사막을 바꾸어 보려는 별별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땅이 받은 저주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세울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땅의 저주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저주 받은 땅으로 인해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17). 범죄 전 아담은 복을 받은 땅에서 나온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지만(창2:16) 이제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저주 받은 땅에서 난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이 역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사람의 모든 식량은 땅에 납니다. 아담은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었다가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동은 사역이나 사명을 수행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씀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그런 심판입니다. 본래 사람에게 노동은 사명이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은 노역이요, 고통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강제 노역이란 종신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죄를 범한 아담에게 ‘먹는 문제의 고통’을 심판으로 주신 것입니다.

“땅의 소산”이란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전과 달리 단지 나무의 열매, 씨 맺는 채소(옥수수, 귀리, 밀, 보리,

콩 등)를 먹었던 사람이 이제는 땅 속을 파헤쳐서 그 소산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 고구마, 땅콩, 양파 등은 땅 속에서 자라는 땅의 소산물입니다. 사람은 이제 이런 것들을 먹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18). 저주 받기 전의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았습니. 땅에서는 풀, 채소, 각종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냈습니다. 따로 유실수나 채소를 심지 않아도 잘 자라났습니. 그러나 이제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 자라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납니. 가시덤불, 엉겅퀴는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 지금 주변에 있는 아무 산이나 들을 보십시오. 어디에나 사람이 심지 않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볼 수 있습니. 사람이 무엇인가를 심는 곳에는 반드시 잡초가 자랍니. 정원이든 논과 밭 어디든 사람이 무엇을 심는 곳에는 반드시 그 아래 ‘잡초’가 납니. 땅은 사람에게 늘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 주님께서, 사람이 땅을 갈고 땀 흘려 일하면서 심판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 사람들은 제초제를 뿌리고 비닐로 땅을 덮고 별별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땅에서 솟아나는 잡초, 가시, 엉겅퀴 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땅은 계속해서 저주의 산물들을 내 놓습니.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끊임없는 삶의 역경을 보여 줍니. 자신이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 우리의 마음은 밭으로 묘사됩니. 마음속에는 각종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솟아오릅니. 잠시만 놔두어도 우거질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납니. 그래서 평생토록 땅이 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 처리해야 합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일은 많은 인내와 수고와 노력이 동반됩니. 고통이 따릅니. 이것은 삶의 역경입니. 성경은 말합니.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전7:14). 역경을 당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 욥기 5:6-7,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욥5:6-7),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욥14:1)라고 말합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는 그런 땅은 없습니.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 이를 극복하려면 힘이 필요합니. “역경을 당하는 날에 네가 기진하면 네 힘이 적은 것이니라.”(잠24:10). 우리는 역경의 날에 기진하지 않도록 힘을 얻고 새롭게 해야 합니.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19절입니.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19). 주님이 주신 또 한 가지 심판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입니. 심판의 기간은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즉 종신형입니. 아담은 죽을 때까지 저주 받은 땅을 갈며 그 땅에서 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땅의 소산물을 먹기 위해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 일종의 ‘노동 교화형’입니. 아담이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땅은 아담에게 좋은 것을 냈습니.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땅은 아담에게 좋지 않는 것을 냈습니. 아담이 땅을 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힘든 일, 고통이 되어 버렸습니. 열심히 일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본성입니. 그런데 이것이 타락으로 인해 부패되었습니. 이제 남자의 반역과 일의 고통으로 인해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닌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 사람

들은 땅을 갈기 싫어서 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다른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 저주를 외면합니다. 도시 생활에 젖은 사람들은 땅이 주는 심판의 교훈을 거의 잊어 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더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일은 힘들고 즐겁지 않고 적절한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 우리는 죄의 대가와 심판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니라”(롬6:23)는 말씀대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속박, 사망의 법, 사망의 권능에서 우리를 건져 내 주셨습니다(롬5:17-21 골1:13). 아멘.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 창3:19

요절: 창3:19

오늘 말씀은 “아담의 죽음” 즉 사람의 육체적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경고는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창2:17)였고 심판을 선포하는 마지막 말씀 역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창3:19).”입니다. “그때에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다.”(전12:7). 사람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생자필멸(生者必滅)이란 말 그대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모르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 그 몸은 “죄의 몸(롬6:6), 사망의 몸(롬7:24)”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 판단에 관계없이 ‘죄와 사망의 법(롬8:2)’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롬7:23). 아담은 사망의 고통, 사망의 쓰라림, 사망의 물결, 사망의 두려움을 체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생명과 더불어 사망을 가장 핵심 주제로 다룹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망을 선고 받아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딤후1:10). 주님은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망을 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맛본 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 내려 하심입니다(히2:14-15).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와 사망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폐해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죽음이 나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그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알듯이 땅에서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살다 몸이 죽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육체적 사망은 신자, 불신자 구분 없이 모두에게 임합니다. 둘째 사망은 크리스천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계 20:13-14).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계 20:15).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는 둘째 사망에 대한 가르침을 왜곡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옥, 불 못 등을 단지 상징이나 문학적 비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사상이요 교리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함으로 지옥과 불 못에 대한 교리를 없애 버리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

옥과 불 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네가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3:19)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형은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들이 사는 거대한 감옥이요,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매일 사형 집행을 보는 것입니다. 사형수들은 사형선고를 받고 사는 사람들로써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사형수의 운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마귀는 사형 집행인입니다.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히2:14). *살인자(요8:44).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를 만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많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지만 죽음을 막거나 피하거나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요, 죄의 삯이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질병과 노화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사망합니다. 성경 신자들은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들이 아니요, 생물학자나 의학자들이 아니지만 사망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해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12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롬5:12). 이 말씀은 창세기에 2:19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지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유전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죽음은 각 사람의 죄 때문이지 아담의 죄, 조상들의 죄,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위에도 사망은 균림합니다(롬5:14).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들을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신24:16). 동양인들의 사고방식 중 하나가 조상들의 죄가 대를 통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오류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변명이요, 핑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롬5:12)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모세의 책에 있는 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서 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들을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대하25:4). 주님은 분명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전달된 것은 분명하지만 각 사람이 죽는 것은 각 사람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 역시 다른 사람(아담)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해석이나 종교적 견해가 아닌 주님의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 죽음은 죄의 삯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삯-wage. 주님은 죄의 삯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PAID FULL.

• 죽음은 죄의 완료(결과)입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주님은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원인 제거-요1:29, 히9:26, 요일3:5. 이 땅에서 사람이 맞는 최후, 최종적인 일은 죽음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롬6:21). 육체의 모든 일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은 저주와 심판의 결과이지만 죄인이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끝이 있다는 점에서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종결(finish, end)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아담은 죄의 결과, 죄의 삶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 그것은 죄로부터 해방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각 사람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판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9:27).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은 죄와 저주를 모두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 죽음은 멸망 받을 마지막 원수입니다.

“멸망 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15:26). 죽음은 생명에 삼킨바 될 것입니다. 생명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끝이 생명입니다.

• 죽음은 죄가 균립하여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균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롬5:21). *죄의 중으로 사망에 이르고(롬6:16). 죄에 대해 죽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에 대해 해방됩니다(롬6:7).

• 죽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롬7:5). 율법은 죄를 더하여 죽게 하는 사망의 직무입니다.

• 죽음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전8:8). 사람들은 스스로 이 죽음의 권능,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상은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는 종교인들은 죽음과 관련하여 ‘영생에 이르는 관문’ ‘윤회의 과정’ ‘생명의 소멸’ ‘영원한 안식’ 등등 듣기 좋은 말들을 골라서 합니다. 그러나 사망은 불 못에 던져지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망의 쏘는 것이 죄입니다.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가 마귀입니다. 문제는 육체의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눅12:5).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실 수 있고(행5:5-10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를 범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셨습니다(벧후2:4). 주님은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십니다. 이것은 저주 받은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일입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9:27).

자,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모든 죽음은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적입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 죽음’이 있고, ‘영이 죽는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죄로 인해 죽습니다(롬7:24;8:10). 이것이 육체적 죽음입니다. 영은, 본래 주신 분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며(전3:21;12:7 욥34:14 시104:29) 주님께 의탁합니다(눅23:46 행7:59). 혼은 몸을 떠나 어디론가 옮겨집니다. 하늘이든, 지옥이든 천사들이 각 처소에 옮겨 놓습니다. 육체가 죽을 때 우리의 몸 외에 영과 혼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삼위일체입니다(살전5:23, 창2:7).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요일5:7).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습니다(창2:7). 사람의 몸은 땅의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영-성령, 혼-하나님 아버지, 몸-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이 ‘처음 본래 기원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전3:20-21).

아담은 육체의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그 죽음이 집행된 것은 93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아담은 그 날 ‘영이 먼저 죽고 나서’ 930년이 지난 뒤에 몸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은 혼과 마찬가지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몸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 최초의 죄인이요,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들여왔지만 처음 죽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처음 죽은 사람은 의로운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당한 최초의 혼(아벨)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떠나간 최초의 혼(아벨)은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히11:4).

자, 여기서 한 가지 살펴 볼 것은 성경 비판자들에 의해 가해지는 여러 가지 공격 중 가장 자주 반복되는 것 중 하나인 아담이 언제 죽었는가? 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7). 그런데 아담이 **은** 그 날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는 것은, ‘아담은 단지 영적으로만 죽었을 뿐(영이 죽었다),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날 아담의 몸도 영도 죽지 않았습니니다. 물론 영이 죽었다는 의미를 다른 식으로 풀어 볼 수는 있지만 아담의 영은 죽었거나 기능이 상실했거나 본질이 훼손 되었거나 기타 어떤 식의 설명도 합당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영은 몸이 죽을 때 그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영은 930년 동안 아담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의 몸이 죽을 때까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요, 시체일 뿐입니다(약2:26).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즉 몸이 살아 있는 동안 영이 죽었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아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날(먹는 날)’ 죽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담이 죽어야 할 그 날 아담

을 대신해 죽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 범죄함으로 죽어야 했을 한 사람을 대신해 한 마리의 양을 피 흘려 죽게 하였고, 아담을 대속하셨습니다. 이 양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그 날 아담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순간, 아담을 대신해 죽기로 '이미' 결심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창세 전'에 예정된 것입니다(벧전1:20). 자, 주목하십시오. 창세전이란 "세상이 시작되기 전"이지 "땅이 있기 전"이 아닙니다. 땅과 세상은 다릅니다.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창1:1).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신 10:14). 세상은 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삼상2:8). 땅과 세상은 엄연히 구별됩니다(렐51:5, 시89:11). 현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고후4:4).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요, 세상 왕국들을 자기 소유라고 말합니다(마4:8). 세상에 있는 것들도 마귀의 것입니다(요일2:15).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는 물리적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고, 세상은 사탄의 통제 하에 땅 위에 있는 영적인 영역을 지칭합니다. 세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신의 통치권, 왕권을 잃어버렸을 때 악한 현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귀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 바로 악한 현 세상(갈1:4)의 시작입니다. *세상-마28:20;24:3. 악한 현 세상이 시작될 때 사람은 현 세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에덴에서 아담의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소식입니다.

- 예수님의 피와 죽음은 '창세 전'에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벧전1:20). '땅이 있기 전'이 아니라 "창세 전에"입니다. 현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게 될 때, 자신이 대신 죽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계13:8).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죽은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날 충만한 때가 이르매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갈4:4).

- 예수님은 정하신 때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롬5:6). 주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반복되는 표현이 "때가 이르렀사오니"(요17:1;12:23)입니다.

아담은, 범죄 한 그 날 자신을 대속해서 죽는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보았습니다. 여자의 씨를 통한 구원 계획을 들었습니다. 어린 양은 아담이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잡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용서를 받았지만 '죄가 제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히10:4,11). *출34:7 민 14:18.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 한 날, 아담의 육체가 '저주 받은 땅'에서 먹거리를 찾아 땀 흘리며 수고하다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아담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다. 아담은 첫 사람이요, 아담에게 선고된 심판과 저주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선고된 것입니다. "한 피로 만드사..."-죽음, 죄, 심판 등등. 옛 사람, 옛 창조. 예수님은 새로운 족속, 새로운 인류, 새로운 창조의 머리이십니다.

아담이 범죄 한 그 날 죽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아담)을 대신해 죽으시겠다는 '미리 예정된 약속(벧전1:20)'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러 오셨고, 죽으심으로써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누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요5:24),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둘째 사망과 혼

말씀: 창3:19

요절: 창3:19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망(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히9:27) 이는 아담에게 선포된 사망 선고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두 번 죽기도 했습니다. 나사로, 유두고, 도르가 등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았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첫째 사망을 두 번 당한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에 모두 나옵니다. 이는 사망이 정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는 사람의 죽음이 단지 '잠'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불 호수에 던져지는 것으로(계 20:14)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계시록 20:15;21:8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계20:15).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21:8). 성도는 저 하늘에서 자기 몫을 받고, 죄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습니다.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계2:11).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계20:6).

첫째 사망이 존재의 끝이나 혼의 멸절, 혼의 소멸이 아닌 것과 같이 둘째 사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사망을 통해 사람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원한 삶의 장소(셋째 하늘, 낙원)로 옮겨지거나 혹은 지옥이라는 일시적(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계20:12-15) 고통의 장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죄의 몸은 이 땅에서 벗어 버립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전 3:20;12:7). 신자나 불신자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전3:21;12:7 욥34:14 시104:29). 그러나 혼은, 가는 곳이 각각 다릅니다. 성도는,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고후5:8, 빌1:23). 하늘 왕국(heavenly Kingdom)으로 갑니다(딤후4:18). 그러나 불신자들은 모두 지옥으로 옮겨집니다. 둘째 사망이란, 지옥에서 일시적으로 고통 받던 불신자들의 혼들이 불 못이란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옮겨지게 됩니다(마25:41). 인간은 영원한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계2:11;20:6,14;21:8. 육체의 죽음과 달리 둘째 사망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마10:28). 첫째 사망의 때에 몸과 영은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 버리지만, 혼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만나이다, 하거늘”(눅16:24). 지옥에 간 ‘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알고 심지어 땅에 있는 형제들의 상태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간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불렀고, 나사로를 단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정상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이는 지옥에 있는 혼들이 소멸되거나 수면 상태, 의식이 정지된 상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고통을 모두 느꼈고, 고통의 해결책을 갈구하며 자신의 필요와 소원을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와 증인, 목론교, 안식교도 등이 말하는 ‘혼의 수면’이나 ‘혼의 소멸’ 등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혼은, 이 땅에서 살 때 그랬던 것처럼 지옥에서도 정상적인 기능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땅에서 썩어 흙으로 돌아갔고, 영은 ‘본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혼의 기능과 활동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누가복음 16:3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눅16:30). 지옥에 간 부자는 판단을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합니다. 첫째 사망이란 자신의 몸과 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아닙니다. 혼은 지옥에 머물며 고통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6:9-10을 보십시오. 이들은 지옥에 간 혼들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혼들인데 제단 아래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하더라.”(계6:9-10). 이들의 몸은 죽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혼들은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 때 ‘혼’은, 정신적 의식(눅16:28)과 신체적 기능(눅16:24)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첫째 사망 후 ‘혼’은 수면 상태가 아닙니다. 지옥에 간 죄인들의 혼이나 죽은 의인들의 혼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화하고 간청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이들의 혼은 자신들이 당한 일을 알고 있으며 자기들을 죽인 원수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그 일에 대해 주님께 복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혼은 지상에서 살았던 생전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체적 감각(*혀 눅16:24)이 무디어지거나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은원(恩怨) 관계가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혼들이, 무의식의 상태가 아님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 죽은 자들의 혼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봅니다.

-몸이 죽어도 혼은 잠들지 않습니다. 혼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혼은, 의식이나 기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무의식, 무감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혼은 봉인되지 않습니다. 혼은 해체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혼은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나 종교에서 가르치는 ‘혼’에 대한 가르침과 성경의 ‘혼’에 대한 가르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혼은 자아, 자신입니다. 지옥에 있는 혼이든(눅 16:19-31), 제단 아래 있는 혼(계6:9)이든, 하늘에 있는 혼이든 혼들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합니다.

마태복음 16:26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마16:26). 혼은 인간 자신이며 영원합니다. 첫째 사망은, 혼을 잃는 것이 아니라 혼이 몸을 떠나 그 거처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혼을 잃는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혼이 지옥으로부터 나와서 크고 흰 왕좌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아 볼 못으로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계20:13-14 마10:28). 이곳이 잃어버린 자들(불신자들)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첫

째 사망'이 사람의 몸과 영을 일시적으로 잃는 것인 반면 '둘째 사망'은, 사람의 혼이 유일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은 지옥이나 불 못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잠11:30). 주님의 관심은 혼의 구원입니다.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불 못으로부터 혼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일도 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약1:21). *혼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은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능히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알고 믿고 확신합니까? 히브리서 10:39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히10:39). 우리는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합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벰전1:9).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제가 과거형 임에 주목. 복음을 믿는 자들의 '혼의 구원'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 '혼의 구원'에 대해 성경을 상고하고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습니다. '무엇인지' 혹은 '어느 때인지'를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벰전1:10-11). 구약의 대언자들의 주된 관심이 '혼의 구원',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었음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혹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지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 이 진리를 다 듣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도의 구원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아담은 구원을 받았는가?' 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도들의 혼의 구원에 대해 묻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판단자들'이 아니지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지옥으로 갔나요? 하늘로 갔나요?'에서부터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벰전3:15 잠22:21).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 내느니라.”**(잠15:28).

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가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는지 잘 알 것입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모두 '혼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큰 오류이며 무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관련된 300여 구절은 온통 몸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약 300구절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적 생명의 구원'을 다룹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 받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대홍수(물)로부터의 구원입니다(벰전3:20). **“...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벰전3:20). 그는 자기 집을 구원했습니다(히11:7).

노아는 의의 상속자로 불리는 의인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롯은 불로부터 자신과 두 딸을 구원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롯 역시 의인이었습니다(벧후2:7). 이들이 받은 구원은 모두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적 생명의 구원’이었습니다. 요셉은 대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창45:7)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말한 구원은, 자기 가족들과 후손들이 7년이란 엄청난 기근에서 굶어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했습니까? 기근으로부터 구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파라오와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죽은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출14:30). 구약시대 때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물이나 불, 질병이나 고통으로부터, 기근이나 전쟁으로부터, 원수의 압제로부터, 포로됨으로부터 육체적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모두 구원자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은 블레셋, 시리아, 앗시리아 등 이방 민족들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자신과 이스라엘을 지켰는데 그들의 압제, 포로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적 구원의 핵심은, ‘육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 사는 것’입니다. 종이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며, 빛을 진 자가 빛을 탐감 받는 것이 구원이요, 노예나 종, 포로 된 사람이 풀려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약적 구원은 죄로부터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혼을 구원한다”는 말씀조차도 육체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혼의 구원’은 이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로마의 노예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노예란 신분 그대로입니다. 포로수용소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포로는 그대로 수용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죄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형량을 채울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빛을 진 자는 구원을 받아도 자신이 진 빛을 다 갚아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어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혼의 구원이지만 몸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다룹니다.

구약의 ‘육체적 구원’은 신약의 ‘혼의 구원’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의 그림자(히 10:1)란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은 다가올 ‘혼의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갖가지 재난, 질병, 죽음, 기근, 전쟁 등으로부터 죽지 않고 사는 몸의 구원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언자들이 궁금해 했던 것은 몸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입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벧전1:10-11).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혼의 구원입니다. 지옥의 정죄와 저주,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다 핍박을 받고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의인이 땅에서 잘되고 강해지고 오래 살고 부유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사악한 자는 저주를 받아 멸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아벨은 살인자 가인으로부터 육체의 생명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혼이 구원 받았고, 성전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 역시 몸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혼은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상소 유업을 지키려던 나뭇은 악한 이세벨과 아합 왕으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구원 받지 못했으나 혼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육체의 생명은 구원 받았으나 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나와 함께 탄 선원들.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죄수들.

신약 성경은 주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다루지만 육체의 생명과 관련된 구원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 역시 주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이들은 죄로부터의 구원, 혼의 구원이 아닌 육체의 생명을 살려 달라는 육체적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받는 구원은 혼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간수들과 죄수들을 향해 말하기를,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행 27:31)라고 했는데 이 역시 죄로부터 혼의 구원이 아닌 육체적 생명이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는 ‘구원’을 말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계획을 막고 명령을 내려...”(행 27:43)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죄수들을 호송하던 군인들로 인해 바울이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고, 백부장을 통해 구원이 임했습니다(행27:43-44). 이 구원은 육체적 생명이 사는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혼이 구원 받았지만 자신들의 죄로 인해 몸이 죽은 신약 성도들을 보십시오.

- 성령을 속임으로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혼은 구원 받았지만 몸을 죽임을 당했습니다(행5:1-10).
- 아버지의 첩과 음행한 아들은, 혼은 구원 받았지만 몸은 사탄에게 넘겨짐으로 죽었습니다(고전5:5).
- 고린도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 몸이 병들고 죽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고전11:30).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 후메나오와 알렉산더는 죄로부터 혼은 구원 받았지만 거짓 교리와 신성 모독으로 인해 그 몸은 사탄에게 넘겨졌습니다(딤후1:20).
- 혼은 구원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산 성도 중에는 죽임을 당한 예들이 많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롬8:13).

-죄로부터 혼이 구원 받았지만 믿음으로 인해 몸이 죽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 주와 복음을 증언하고 죽기까지 신실함으로 죽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계2:10).
-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당하되 구출 받기를 원하지 않고 죽었습니다(히11:35). 이들은 혼이 구원받았기에 몸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혼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약5:20). 현대인들은 몸을 보존하고자 끊임없이 온갖 수단을 강구하거나 영적인 삶을 고양시키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은 인간의 혼입니다.

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약의 대언자 중 미가는 혼의 구원에 대해 이

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죄로 인하여 내 만아 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미6:7). 미가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로서 율법의 ‘속죄제’로 는 혼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행4:12). 사람의 혼이 지옥과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해서 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히9:27)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의 정죄와 저주,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혼의 구원’이 필요함(마16:26 막8:36-37)을 말씀드렸습 니다. 우리는 혼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